

'자신감 충전' 김기훈, KIA 우승 질주 조커 된다



미국 트레이드 애슬레틱서 한달 간 맞춤 훈련 매커니즘·변화구 등 다듬어... 첫 1군 콜업

KIA 김기훈이 순위 싸움의 '조커'가 될 수 있을까?

KIA 타이거즈는 지난 31일 두산 베어스와의 홈 경기에 앞서 엔트리에 변화를 줬다.

우완 김승현과 이형범을 탈소하고 우완 김현수와 좌완 김기훈을 콜업했다. 김기훈은 시즌 첫 콜업이다.

김기훈은 마운드 힘이 필요한 KIA가 주목하는 선수이기도 하다.

김기훈은 2022시즌 중반 상무야구장에서 전역한 뒤 5경기에 나와 좋은 피칭을 보여주면서 KIA의 뒷심 싸움에 큰 힘이 됐다.

강렬했던 가을 보낸 김기훈은 지난 시즌을 앞두고는 선발 후보로 경쟁을 펼치지 못했다.

하지만 '루키' 윤영철이 선발로 낙점되면서 김기훈은 중간투수로 역할을 했지만 전역 후 보여줬던 모습과는 달랐다. 올 시즌에는 제구 난조와 스피드 저하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키나와 캠프에서는 중도 귀국했었다.

이후 자취를 감췄던 김기훈은 8월을 앞두고 드디어 콜업을 받았다.

어 콜업을 받았다.

지난 한 달 김기훈은 미국에서 배움의 시간을 보냈다.

KIA는 지난 6월 20일부터 한 달간 김기훈과 함께 김현수, 유승철, 김민재, 조대현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트레이드 애슬레틱에 파견했다.

이곳에서 김기훈은 체계적으로 매커니즘을 분석하고 맞춤형 훈련을 진행했다.

김기훈은 "매커니즘 개선 하고 변화구도 다듬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직구 던지는 각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폼적으로 던질 때 끝판이 일찍 일어선다고 했다. 일찍 일어선다던지 때때로 힘이 분산된다고 이야기해줬다. 힘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선수들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준비된 '예시'가 김기훈이 답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됐다.

김기훈은 "성공사례와 좋은 데이터가 많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 해보고 안 되면 바로 다음 방향을 제시해 줬다.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하면서 바꿨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귀국 후 27일 삼성과의 퓨처스리그 경기를 통해 한 차례 실전도 소화했다.

김기훈은 "1경기 던졌는데, 센터에서 던졌던 느낌이 나왔던 것 같다. 아직은 부족하다. 그곳에서 만들어진 루틴을 꾸준히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매커니즘이라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답을 찾아온 김기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자신감'이다.

김기훈은 "나를 믿고 던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그곳에서도 나에게 맞춰서 연습을 했으니까 자신을 믿으면 된다고 이야기해 줬다. 꾸준히 연습을 하고 있다. 연습을 토대로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연습과 준비를 하려고 했다"며

"올 시즌 처음 1군 올라왔는데, 준비했던 공을 마운드에서 후회 없이 던지는 것을 먼저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KIA는 올 시즌 선발진 줄부상과 불펜진의 난조에도 뜨거운 타격으로 1위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우승이라는 결승선까지는 이제 42경기가 남았다. 흔들리는 마운드에 야수진의 긴장감과 피로도 높아진 상황, 폭염까지 찾아왔다. 마운드 위기가 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마운드 안정화가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됐다.

시즌 중반 미국에서 고민과 성찰의 시간을 보낸 김기훈이 '여름 사나이'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기훈

광주FC, 금호고 김윤호와 첫 준프로 계약



패스·공간 침투 능력 우수

광주FC 역사상 첫 준프로 선수가 탄생했다. 광주는 U18 금호고 공격수 김윤호(17·사진)와 준프로 계약을 체결했다.

준프로는 구단 산하 유소년 구단 소속 선수를 대상으로 아마추어 신분을 가지고 K리그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광주 구단 역사상 첫 준프로 계약이다.

김윤호는 2학년이지만 187cm·80kg의 우수한 신체조건을 바탕으로 한 포스트 플레이, 날카로운 키패스와 공간 침투 능력으로 시즌 중 준프로 계약을 맺게 됐다.

김윤호는 스트라이커뿐만 아니라 공격형 미드

필더도 가능한 전천후 공격 자원으로 평가받는다.

1학년 때부터 금호고의 핵심 멤버로 활약하고 있는 그는 지난 3월에는 대한민국 U17 대표팀에 소집되는 등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김윤호는 "유스 명문 광주에서 최초로 준프로 계약을 맺게 돼 매우 기쁘다"며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말을 가슴에 품고, 팀이 필요할 때 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프로와 유소년 연계를 더 튼튼하게 구축하게 된 광주는 U22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코리아컵과 ACLE 로테이션 운영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토틸입단' 양민혁 "SON 때문에 선택"



2024 쿠팡플레이 시리즈 토틸입단과 팀 K리그의 경기를 하루 앞둔 3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 오픈 트레이닝에서 토틸입단을 발표한 양민혁(왼쪽 두번째)이 훈련에 나서고 있다.

팀 K리그로 토틸입단과 경기

"지난해 이맘때는 K리그 18세 이하(U-18) 챔피언십을 뛰고 있었어요. 내년 이맘때는 토틸입단 소속으로 한국에 오고 싶어요."

내년 1월부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틸입단 유니폼을 입고 유럽 무대를 누비는 양민혁이 1년 뒤 금의환향할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양민혁은 지난 31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팀 K리그 인터뷰에서 취재진과 만나 토틸입단과 계약한 배경과 소감을 밝히고 앞으로의 목표를 세웠다.

지난 28일 프로축구 강원FC에서 뛰는 2006년생 셋째 양민혁의 토틸입단이 공식 발표했다.

팬 투표로 선정되는 팀 K리그 '쿠팡영플' 부문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양민혁은 K리그 대표 영건 자격으로 이날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토틸입단과의 2024 쿠팡플레이 시리즈 1경기에 나선다.

6개월 뒤 자신이 뛰게 될 팀을 적으로 먼저 만나려는 셈이다.

양민혁은 "개인적으로 더 특별한 것 같다. 그 팀에서도 나를 유심치 못할 것 같다"며 "오늘 경기를 통

해 장점을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양민혁은 다른 유럽 구단의 구애를 뿌리치고 토틸입단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과 토틸입단의 주장" 손흥민의 존재가 결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양민혁은 "같은 한국인으로서 많이 의지가 될 것 같다. 손흥민의 양발 슈팅이 굉장한데, 많이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이적 발표가 난 직후, 올 시즌을 앞두고 토틸입단에 합류해 프리 시즌 경기를 뛰고 있는 2006년생 동갑내기 아치 그레이로부터 소셜미디어(SNS) 팔로우 신청도 왔다고 한다. "아직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는 않아서 대화를 주고받지는 않았다"는 양민혁은 "한 달 전부터 영어 공부하고 있다. 확실 히 아직은 어렵다"고 한숨을 지었다.

양민혁이 토틸입단에 합류하는 내년 1월은 EPL이 한창 진행 중인 시기다.

양민혁은 "시즌을 같이 시작하는 여름에 가면 더 좋을 것"이라면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서 인정받고 기회를 받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당장 눈앞의 목표는 강원 FC의 우승이다.

양민혁은 "강원이 요즘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몇 경기만 승리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며 "(토틸입단) 가기 전에 우승하고 기분 좋게 떠나고 싶다"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한·중 청소년, 광주서 스포츠로 '우정' 나눴다

청소년스포츠 교류대회 성료

한·중 160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2024 제17회 한·중 청소년스포츠 교류대회'가 광주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광주시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광주시의 후원으로 지난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진행됐다.

교류 대회에는 중국 충칭시에서 탁구, 농구, 배드민턴 3종목 80명의 선수단이, 광주에서는 수피아여중, 문화중, 광주체육중 등에서 80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지난 25일 입국한 중국 선수단은 26일부터 28일까지 광주 선수단과 합동훈련과 연습경기를 진행했다. 29일에는 공식경기를 펼쳤다.

농구는 상무국민체육센터, 탁구는 동림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은 광주시체육회관에서 각각 진행됐다.

이날 선수단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승패와 관계 없이 서로의 경기력을 비교하고 국제경기 경험을 배우는 기회로 삼았다.

농구에서 무승부가 기록됐고 배드민턴은 한국



지난달 29일 제17회 한·중 청소년스포츠 교류대회에 참가한 한·중 선수단이 광주 빛고을체육관에서 친교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이, 탁구는 중국선수단이 승리했다.

공식경기가 끝난 후 선수단은 빛고을체육관에 모여 친교행사를 통해 우정을 나눴다.

30일에는 중국 선수단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립미술관, 양림역사문화마을 등을 방문해 광주의 문화예술을 체험했고, 광주김치타운에서 중국 하사위배 단장, 전갑수 시체육회장과 함께 김장을

체험하면서 한국의 문화도 경험했다. 직접 만든 김치는 광주 청소년 복지단체에 기증됐다.

이번 행사는 2006년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를 계기로 2008년부터 양국 체육회장 간 교류이행 합의 체계를 거쳐 추진됐으며 매년 국가별 초청 및 파견 방식으로 진행돼 오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 광주상설공연(8월)
 일시 : 2024-08-03(토) ~ 2024-08-31(토)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8.8.(목)-9.(금) 오후 5시 여름기획공연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2, 8379

GAC 공모전시 UBUNTU : 장원석·박일광
 일시 : 2024-07-12(금) ~ 2024-08-1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